



###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진주시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인식도 조사

Awareness of the elderly on denture  
prosthetic program

2008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강 남 이

# 진주시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인식도 조사

지도교수 김 동 기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강 남 이

강남이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병   진   인

위   원   광주보건대학   교수   양   정   승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동   기   인

2007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ii
I. 서 론 .....	1
II.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	4
2.2. 조사방법 .....	4
2.3. 통계분석 .....	4
III. 조사성적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7
3.2.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 시 편안함 여부 .....	8
3.3. 사용기간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수리 여부 .....	8
3.4. 의치제작횟수에 따른 연령층별 새 의치 장착 후 편안함 여부 .....	9
3.5. 연령층별 의치 착용감 여부 .....	10
3.6. 의치종류에 따른 딱딱한 음식 저작가능 여부 .....	10
3.7. 딱딱한 음식 저작시 의치탈락 여부 .....	11
3.8. 연령층별 저작시 잇몸통증 유무 .....	12
3.9. 연령층별에 따른 전체적인 얼굴모습 만족 여부 .....	12
3.10.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사용 만족 여부 .....	13
IV. 총괄 및 고안 .....	14
V. 결 론 .....	18
참고문헌	
부 록(설문지)	

# 표 목 차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	4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6
표 3. 조사대상자의 의치보유실태및 현존치아수 .....	7
표 4.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 시 편안함 여부 .....	8
표 5. 사용기간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수리 여부 .....	9
표 6. 의치제작횟수에 따른 연령층별 새 의치 장착 후 편안함 여부 .....	9
표 7. 연령층별 의치 착용감 여부 .....	10
표 8. 의치종류에 따른 딱딱한 음식 저작 가능 여부 .....	11
표 9. 딱딱한 음식 저작 시 의치탈락 여부 .....	12
표 10. 연령층별 저작시 잇몸통증 유무 .....	13
표 11. 연령층별에 따른 전체적인 얼굴모습 만족 여부 .....	14
표 12.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사용 만족 여부 .....	14

# ABSTRACT

## Awareness of the elderly on denture prosthetic program

Kang, NamEi. R.D.H.

Advisor : Prof. Kim, DongKie. D.D.S., M.S.D., Ph.D.

Department of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Chosun University.

We surveyed 131 numbers of old aged base- welfare person more than 65 years old of who have denture from 2002 to 2006 living in Chin ju for making base data needed in the national project of delivery of free denture to old aged person.

The survey has found that the following results by using questionnaire.

1. 44.3% of the total person surveyed feel comfortable.
2. There are most numbers who have experienced denture repara using denture during 1-3 years 60-70% of the person 65-74 years old have experience of denture repair during 45-70% of the person 75-84 years old have experience of denture repair.
3. 90.9% of the people 65-74 years old who have a denture remaked 2-3 times have feel comfortable 71% of the people 75-84 years old who have a denture remaked 2-3 times have feel comfortable 80% of the people more than 85 years old who have a denture not remaked have feel comfortable.
4. 39.7% of the people 65-74 years old have feel comfortable 50% of the people 75-84 years old have feel comfortable 10.3% of the people more than 85 years old have feel comfortable.
5. 46.7% the people 65-74 years old have feel pain on gingiva 46.7% of the



people 75-84 years old have feel pain on gingiva.

6. 45% of the people are satisfied with their face except the person more than 85years old.
7. 54.2% of the 65-74 years old and 51.5% of the 75-84 years old and 62.5% of the over than 85 years old are satisfied with their each denture.

# I. 서론

지속적인 경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되었고, 젊은 세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으로 유래 없는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총인구수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2022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sup>. 1998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다른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sup>2)</sup>.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2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미국의 75년,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의 26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sup>3,4)</sup>.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의 고령화 속도에 반하여,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서구 여러 나라와는 달리 빈곤한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사회적 차원의 복지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건강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특히 노인들에 있어서 구강건강의 유지는 전신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p>5,6)</sup>. 특히 노인의 치아 상실은 저작능력의 저하를 유발하고, 음식의 선택범위가 좁아지며, 식사의 양과 질이 떨어짐으로써 건강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아 상실은 발음과 외모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인관계 및 원활한 사회생활에 제한을 주게 되어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sup>7,8)</sup>.

우리나라 노인의 무치악자율은 16.2%로 매우 높고, 의치가 필요함에도 장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40.0%로, 저작의 불편함으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전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자녀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노인이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sup>9)</sup>. 이처럼 노인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치아상실로 노년의 건강문제를 악화시키고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치와 같은 보철진료는 현재 의료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저소득층 노인들은 보철치료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방치된 상태이다. 또한 피치 못할 경우에는 무자격 구강진료업자에게 치료를 받음으로써 불량진료의 후유증으로 인해 구강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sup>10,11)</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노인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의 보철진료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sup>12,13)</sup>. 기본적인 국민복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적 복지과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4년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의 구강건강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치과치료는 완전의치나 부분의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무료의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5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2004년에는 국비, 시비가 각각 50%씩 총사업비 6,50억여원과 사업량 8,928명이 책정되었고<sup>15)</sup>. 2005년, 2006년에는 6,80억여원과 사업량 9,000명, 2007년에는 7,00억여원과 사업량 10,600여명(노인의치 및 노인불소겔도포포함)이 책정되었다,<sup>16)</sup>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매년 5천 명씩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만한 연구보고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주기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한다<sup>16,17)</sup>. 최 등<sup>16)</sup>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구강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의치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였고, 양 등<sup>24)</sup>은 광주광역시 서구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무료의치를 장착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56명을 대상으로 의치장착 후 의치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적여건 에 부합된 연구보

고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무료의치를 장착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찾고 향후 노인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2.1. 조사대상

2002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무료의치를 장착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 중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에서 선정된 수혜자 350명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총인원 350명 중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183명(52.3%)이었고, 불참한 이유를 추적해보니 사망, 이사, 거주지 불명, 장기출타, 연락불가능 등의 이유가 있었다.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 52명을 제외한 131(38%)명의 조사결과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조사방법

2007년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보건소에 내소한 조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직접면담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설문지에 관해 사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담당하였고, 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여러 선학들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sup>18)</sup>.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분석에 보조적으로 필요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연구의 주제인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인지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혜자의 인지도에 관한 문항은 저작기능, 잇몸통증, 의치고정, 심미적 기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 2.3. 통계분석

수집된 설문지 131부를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의치 편안함 여부, 의치 수리 여부, 새 의치 후 상태, 의치 잘 맞음 상태, 딱딱한 음식 저작여부, 의치 탈락여부, 잇몸통증, 전체적인 얼굴 모습, 의치 만족도에 관한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으로 실시하였다.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항 목(문항)	내 용	설문 형태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동거가족, 수입	선택형 객관식
구강상태	의치종류 현재 의치 사용기간 의치 사용 총 기간 의치 제작 횟수 잔존치아수 구강건강상태	선택형 객관식
의치사용과 관련된질문 내용	의치를 장착하고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편안합니까 의치는 무언가 불편하여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새 의치를 한 후 무엇보다 편해졌습니까 의치는 장갑을 끼듯이 입에 잘 맞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의치가 빠집니까 의치가 잇몸을 험하게 하거나 아프게 합니까 전체적인 얼굴 모습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치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잘모르겠다 아니오

### Ⅲ. 조사 성적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31명으로 성별분포는 남자가 18.3%이었고, 여자가 81.7%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5-74세가 40.5%, 75-84세가 49.6%, 85세 이상이 9.9%이었다. 학력에서는 무학이 71.8%이었고, 초등학교 졸업이 23.7%이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2.3%이었다. 동거가족에서는 혼자가 61.1%이었고, 배우자와 같이 동거한다가 19.8%이었고, 아들 또는 딸의 가족과 동거한다가 9.9%이었고, 기타가 9.2%이었다. 수입에서는 10만원 미만이 12.2%이었고, 10-19만원이 4.6%, 20-29만원이 29.0%, 30만원 이상이 25.2%이었으며, 기타가 29.0%이었다(표 2). 상악의치의 종류는 총의치가 55.0%이었고, 국소의치가 40.5%이었으며, 하악의치의 종류는 총의치가 42.7%이었고, 국소의치가 51.9%이었다. 현존치아 수는 하나도 없다가 35.9%이었고, 1-5개가 29.8%이었으며, 6-10개가 19.8%이었고, 11-15개가 9.9%이었으며, 16개 이상이 4.6%이었다. 구강건강상태는 잘 모르겠다가 46.6%이었고, 건강하다가 33.6%이었으며, 건강하지 않다가 19.8%이었다(표 3).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항 목	구 분	명(%)	항 목	구 분	명(%)
성 별	남 자	24(18.3)	수 입	10만원미만	16(12.2)
	여 자	107(81.7)		10-19만원	6(4.6)
연 령	65-74세	53(40.5)	20-29만원		38(29.0)
	75-84세	65(49.6)		30만원 이상	33(25.2)
	85세 이상	13(9.9)		기타	38(29.0)
학 력	무학	94(71.8)	동거 가족	혼자	80(61.1)
	초등졸업	31(23.7)		배우자	26(19.8)
	중 졸업	3(2.3)		아들 또는 딸의가족	13(9.9)
	고등졸업	3(2.3)		기타	12(9.2)

항목별 조사대상자수 131명(100.0%)

표 3. 조사대상자의 의치보유실태 및 현존치아수

분 류	구 분	명(%)
상악의치 종류	총의치	72(55.0)
	국소의치	53(40.5)
	상악전체가 자연치	6(4.6)
하악의치 종류	총의치	56(42.7)
	국소의치	68(51.9)
	하악전체가 자연치	7(5.3)
현존치아 수	0개	47(35.9)
	1-5개	39(29.8)
	6-10개	26(19.8)
	11-15개	13(9.9)
	16개 이상	6(4.6)
구강건강상태	건강하다	44(33.6)
	잘 모르겠다	61(46.6)
	건강하지 않다	26(19.8)

항목별 조사대상자수 131명(100.0%)



### 3.2.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 시 편안함 여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 시 편안함 여부는 표 4와 같이 편안하다가 44.3%이었고, 잘 모르겠다가 27.5%, 편안하지 않다가 28.2%이었다.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 시 편안함 여부에서 편안하다가 3년 미만에서는 40.7%이었고, 3-6년에서는 39.1%이었으며, 6-9년에서는 57.1%이었고, 9년 이상에서는 48.6%이었다.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 시 편안함 여부에서 편안하지 않다는 3년 미만에서 28.8%이었고, 3-6년에서는 39.1%이었으며, 6-9년에서는 7.1%이었고, 9년 이상에서는 28.6%이었다.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 시 편안함 여부에서 잘 모르겠다는 3년 미만에서는 30.5%이었고, 3-6년에서는 21.7%이었으며, 6-9년에서는 35.7%이었고, 9년 이상에서는 22.9%이었다.

표 4.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 시 편안함 여부

단위 : 명(%)

의치 사용기간	저작 시 편안함 여부			
	계	예	잘 모르겠다	아니오
전체	131(100.0)	58(44.3)	36(27.5)	37(28.2)
3년 미만	59(45.0)	24(40.7)	18(30.5)	17(28.8)
3-6년	23(17.6)	9(39.1)	5(21.7)	9(39.1)
6-9년	14(10.7)	8(57.1)	5(35.7)	1(7.1)
9년 이상	35(26.7)	17(48.6)	8(22.9)	10(28.6)

P=0.512

### 3.3. 장착기간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수리여부

장착기간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수리여부는 65-74세에서 의치수리를 한 사람이 1년 미만에서 43.8%이었고, 1-3년에서 30.8%이었으며, 3-5년에서 40.0%이었고, 5년 이상에서 100.0%이었다. 75-84세에서 의치수리를 한 사람은 1년 미만에서 30.0%이었고, 1-3년에서 54.3%이었으며, 3-5년에서 22.2%이었고, 5년 이상에서 36.4%이었다. 85세 이상에서는 의치수리를 한 사람이 1년 미만에서 0.0%이었고, 1-3년에서

55.6%이었으며, 3-5년과 5년 이상에서 각각 0.0%이었다(표 5).

표 5. 사용기간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수리여부

단위 : 명(%)

장착기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수리	미수리	계	수리	미수리	계	수리	미수리	계
1년 미만	7(43.8)	9(56.2)	16(100.0)	3(30.0)	7(70.0)	10(100.0)	.	.	0
1-3년	8(30.8)	18(69.2)	26(100.0)	19(54.3)	16(45.7)	35(100.0)	5(55.6)	4(44.4)	9(100.0)
3-5년	4(40.0)	6(60.0)	10(100.0)	2(22.2)	7(77.8)	9(100.0)	.	2(100.0)	2(100.0)
5년 이상	1(100.0)	.	1(100.0)	4(36.4)	7(63.6)	11(100.0)	.	2(100.0)	2(100.0)
P값	0.724			0.153			0.070		

### 3.4. 의치제작횟수에 따른 연령층별 새 의치 장착 후 편안함 여부

의치제작횟수에 따른 연령층별 새 의치 장착 후 편안함 여부는 65-74세에서 제작횟수에 따른 편안함은 2-3회 제작시 9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회 제작시 62.1%로 나타났으며, 75-84세에서 제작횟수에 따른 편안함은 1회제작시 71.0%이었고, 2-3회제작시 67.7%이었으며, 85세 이상에서 제작횟수에 따른 편안함은 1회제작시 80.0%이었고, 2-3회 제작시 66.7%로 나타났다(표 6).

표 6. 의치제작횟수에 따른 연령층별 새 의치 장착 후 편안함 여부

단위 : 명(%)

구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편함	불편함	계	편함	불편함	계	편함	불편함	계
1회	18(62.1)	11(37.9)	29(100.0)	22(71.0)	9(29.0)	31(100.0)	4(80.0)	1(20.0)	5(100.0)
2-3회	20(90.9)	2(9.1)	22(100.0)	21(67.7)	10(32.3)	31(100.0)	4(66.7)	2(33.3)	6(100.0)
4-5회	1(100.0)	.	1(100.0)	2(66.7)	1(33.3)	3(100.0)	1(50.0)	1(50.0)	2(100.0)
6회이상	1(100.0)	.	1(100.0)	.	.	.	.	.	.
P값	0.165			0.366			0.672		

### 3.5. 연령층별 의치 착용감

연령층별 의치 착용감 여부에서 착용감이 좋다는 65-74세에서 39.7%이었고, 75-84세에서는 50.0%이었고, 85세 이상에서는 10.3%이었다. 착용감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65-74세에서 47.2%이었고, 75-84세에서는 44.4%이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8.3%이었다. 착용감이 좋지 않다는 65-74세에서 35.1%이었고, 75-84세에서는 54.1%이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10.8%이었다(표 7).

표 7. 연령층별 의치 착용감

단위 : 명(%)

구분	계	연령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계	131(100)	53(40.4)	65(49.6)	13(9.9)
예	58(44.3)	23(39.7)	29(50.0)	6(10.3)
잘모르겠다	36(27.5)	17(47.2)	16(44.4)	3(8.3)
아니오	37(28.2)	13(35.1)	20(54.1)	4(10.8)

P=0.886

### 3.6. 의치종류에 따른 딱딱한 음식 저작가능 여부

의치종류에 따른 딱딱한 음식 저작가능 여부에서 상·하악국소의치의 경우 저작가능은 10.5%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34.2%이었으며, 저작 불가능은 55.3%이었다. 상악은 총의치, 하악은 국소의치인 경우 저작가능은 25.0%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29.2%이었으며, 저작 불가능은 45.8%이었다. 상악은 국소의치, 하악은 총의치인 경우 저작가능은 22.2%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11.1%이었으며, 저작 불가능은 66.7%이었다. 상·하악이 총의치인 경우 저작가능은 25.5%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36.2%이었으며, 저작 불가능은 38.3%이었다. 상악이 국소의치, 하악이 자연치인 경우 저작가능은 16.7%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16.7%이었으며, 저작 불가능은 66.7%이었다. 상악이 총의치, 하악이 자연치인 경우 저작가능은 0.0%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0.0%이었으며, 저작 불가능은 100.0%이었다. 상악이 자연치, 하악이 국소의치인 경우 저작가능은 0.0%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33.3%이었으며, 저작 불가능은 66.7%이었다(표 8).

표 8. 의치종류에 따른 딱딱한 음식 저작가능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	딱딱한 음식 저작가능 여부		
		예	잘모르겠다	아니오
계	131(100)	25(19.0)	41(31.2)	65(49.6)
상·하악국소의치	38(29.0)	4(10.5)	13(34.2)	21(55.3)
상악총의치, 하악국소의치	24(18.3)	6(25.0)	7(29.2)	11(45.8)
상악국소의치, 하악총의치	9(6.9)	2(22.2)	1(11.1)	6(66.7)
상·하악총의치	47(35.9)	12(25.5)	17(36.2)	18(38.3)
상악국소의치, 하악자연치	6(4.6)	1(16.7)	1(16.7)	4(66.7)
상악총의치, 하악자연치	1(0.8)	.	.	1(100.0)
상악자연치, 하악국소의치	6(4.6)	.	2(33.3)	4(66.7)

P=0.617

### 3.7. 딱딱한 음식 저작 시 의치탈락 여부

딱딱한 음식 저작 시 의치탈락 여부는 딱딱한 음식을 저작할 때 의치의 탈락은 15.6%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18.8%이었으며, 의치가 탈락되지 않는다는 20.5%이었다. 딱딱한 음식인지 잘 모를 때 의치의 탈락은 15.6%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43.8%이었으며, 의치가 탈락되지 않는다는 34.9%이었다. 딱딱한 음식을 저작하지 않을 때 의치의 탈락은 68.8%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37.5%이었으며, 의치가 탈락되지 않는다는 44.6%이었다(표 9).

표 9. 딱딱한 음식 저작 시 의치탈락 여부

단위 : 명(%)

의치탈락 여부	계	딱딱한 음식 저작		
		예	잘모르겠다	아니오
계	131(100.0)	53(40.4)	65(49.6)	13(9.9)
예	32(24.4)	5(15.6)	5(15.6)	22(68.8)
잘모르겠다	16(12.2)	3(18.8)	7(43.8)	6(37.5)
아니오	83(63.4)	17(20.5)	29(34.9)	37(44.6)

P=0.126

### 3.8. 연령층별 저작시 잇몸통증 유무

연령층별 잇몸통증 유무는 잇몸통증이 있다가 65-74세에서 46.7%, 75-84세에서 46.7%, 85세 이상에서 6.7%이었다. 잇몸통증을 잘 모르겠다가 65-74세에서 28.0%, 75-84세에서 56.0%, 85세 이상에서 16.0%이었다. 잇몸통증이 없다가 65-74세에서 41.0%, 75-84세에서 49.2%, 85세 이상에서 9.8%이었다(표 10).

표 10. 연령층별 저작시 잇몸통증 유무

단위 : 명(%)

잇몸통증	계	연령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계	131(100.0)	53(40.4)	65(49.6)	13(9.9)
예	45(34.4)	21(46.7)	21(46.7)	3(6.7)
잘모르겠다	25(19.1)	7(28.0)	14(56.0)	4(16.0)
아니오	61(46.5)	25(41.0)	30(49.2)	6(9.8)

p=0.542

### 3.9. 연령층별에 따른 전체적인 얼굴모습 만족 여부

연령층별에 따른 전체적인 얼굴모습 만족 여부는 만족한다가 65-74세에서 44.8%, 75-84세에서 43.8%, 85세 이상에서 10.4%이었다. 잘 모르겠다가 65-74세에서 28.1%, 75-84세에서 65.6%, 85세 이상에서 6.3%이었다. 만족한지 않는다는 65-74세에서 33.3%, 75-84세에서 33.3%, 85세 이상에서 33.3%이었다(표 11).

표 11. 연령층별에 따른 전체적인 얼굴모습 만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	연령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계	131(100.0)	53(40.4)	65(49.6)	13(9.9)
예	96(73.3)	43(44.8)	43(43.8)	10(10.4)
잘모르겠다	32(24.4)	9(28.1)	21(65.6)	2(6.3)
아니오	3(2.3)	1(33.3)	1(33.3)	1(33.3)

P=0.194

### 3.10.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사용 만족도 여부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한 상태에서 의치사용 만족도는 65-74세에서는 54.2%이었고, 75-84세에서는 51.5%이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62.5%이었다. 구강건강상태가 그저 그렇다에서 의치사용 만족도는 65-74세에서는 45.8%이었고, 75-84세에서는 33.3%이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25.0%이었다.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에서 의치사용 만족도는 65-74세에서는 0.0%이었고, 75-84세에서는 15.2%이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12.5%이었다.

표 12.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사용 만족 여부

단위 : 명(%)

구 분	65-74세			계	75-84세			계	85세 이상			계
	예	잘모르겠다	아니오		예	잘모르겠다	아니오		예	잘모르겠다	아니오	
계	24(18.5)	19(14.5)	10(7.6)	53(40.4)	36(27.4)	17(12.9)	15(11.4)	58(51.9)	8(6.1)	2(1.5)	3(2.2)	13(9.9)
건강하다	13(54.2)	3(15.8)	2(20.0)	18(13.7)	17(51.5)	2(11.8)	2(13.3)	21(16.0)	5(62.5)	0(0.0)	0(0.0)	5(3.8)
그저그렇다	11(45.8)	13(68.4)	3(30.0)	27(20.6)	11(33.3)	12(70.6)	7(46.7)	30(22.9)	2(25.0)	1(50.0)	1(33.3)	4(3.0)
건강하지않다	0(0.0)	3(15.8)	5(50.0)	8(6.1)	5(15.2)	3(17.6)	6(40.0)	14(10.6)	1(12.5)	1(50.0)	2(66.7)	4(3.0)
P값				0.001			0.007					0.213

## IV. 총괄 및 고안

지속적인 경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노인문제 중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노인이 행복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강건강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서구 여러 나라와는 달리 빈곤한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특히 치아상실로 노년의 건강문제를 악화시키고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소득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매년 5천 명씩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만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무료의치를 장착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치사용기간에 따른 저작할 때 편안함 여부에서 6-9년에 57.1%가 편안하다고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연령에 따른 조직변화에 따른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 평소 의치로 발음, 고정, 심미적 기능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으나 의치를 장착할 때 저작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장착기간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수리 유무에서 1년 미만 65-74세에서 43.8%, 1-3년 75-84세에서 54.3%. 85세 이상에서 55.6%, 나타나는 것은 구강환경의 변화에 장착기간이 짧을수록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윤 등<sup>27)</sup>에 의하면 의치 장착 후 노인들의 만족도가 88%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의치제작 횟수에 따른 연령층별 새 의치 장착 후 편안함 여부에서 65-74세에서 90.9%, 75-84세와 85세 이상이 71.0%, 80.0% 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의치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든 없든 새 의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층별 의치 착용감이 입에 잘 맞다고 응답한 경우 65-74세에서 39.7% 75-84

세와 85세 이상이 50%, 10.3% 나타난 것은 의치를 착용해서 음식물 저작은 하지만, 자연 치아에서처럼 저작할 수 없고 연령증가에 따른 치조골흡수 등으로 사료되었다.

저작기능에 대한 설문 문항들 중 딱딱한 음식저작여부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상악 총의치, 하악국소 의치 일 경우와, 상·하악 총 의치일 경우에 저작가능여부가 높게 나왔다. 이는 상악은 유지력이 있고 하악은 자연치가 남아 있으므로 안정된 교합을 얻을 수 있거나 전혀 남아있지 않은 총 의치 일 때 더 안정된 교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 된다.

저작할 때 의치 탈락여부에서 의치탈락은 15.6%, 의치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치 제작 과정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유지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저작시 잇몸통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65-74세와 75-84세에서는 '예'라는 응답이 모두 46.7%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85세 이상에서는 6.7%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연령에 따른 기호식품의 변화에서 잇몸통증에 대한 자각 정도의 차이라고 유추된다.

연령층별에 따른 전체적인 얼굴모습 만족여부는 연령이 증가하면 안면근육을 비롯한 구강내의 모든 탄력도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에 틀니로서 악안면 외형의 보정에 대한 한계성은 당연히 있으나 응답자는 정확한 인식부족으로 틀니장착 시 높은 기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치과관계자 및 전문인력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의치장착만족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연령층별 의치 사용에 대한 만족도 여부는 85세 이상에서 만족도가 62.5%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표10의 결과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사의 횟수와 단단한 우식에 대한 선호도는 차이가 있으며 또 자신의 연령에 대한 스스로 갖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다고 유추 할 수 있다. 만족과 불만족의원인 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심미적인문제, 발음문제, 환자의 건강, 이전의 의치사용 여부 등 있다. 이는 반등<sup>21)</sup>이 치과의원 환자들의 가철성 의치 사용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 조사한 83.1%보다 낮았으며, 류 등<sup>22)</sup>이 대학병원 보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75.7%보다 낮았으며, Berg와 Norway<sup>23)</sup>의 65-75%



보다 낮은 만족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부분의치의 경우 잔존치의 개수나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수가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수가를 적용하여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의 불만과 불성실한 시술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수가 적용이 요구된다.

양 등<sup>24)</sup>의 보고에 의하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의치대상자선정 시 어려움, 의치대상노인들의 치과선정 시 어려움, 의치장착 후 사후관리 등이 있었다. 본 조사에서도 향후 노인의치보철사업이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는 대상자선정 시 치협, 보건소, 보건복지부간의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의치대상노인들의 인식도 개선과 의치장착 후 만족도 조사시행, 장착 후 사후관리방안마련, 노인의치보철사업 후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Hoogstraten<sup>25,26)</sup>의 연구결과 보고에 의하면 동일한 양의 최상의 기술적인 진료를 각기 다른 환자에게 제공했을 때 각자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들의 개인별 사전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 등<sup>16)</sup> 연구에서는 의치사용에 만족하는 군에서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기적인 노인복지차원에서 저 소득층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이 더욱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본 연구대상 노인들의 경우 국가에서 무료로 장착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치과의원보다 보건소에서 지정해주는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함으로서 심리적으로 의치사용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의치시술 후 환자가 의치관리방법을 숙지하여 의치 및 잔존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통증 등의 이유로 의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의치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의치시술을 받은 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가 많아 사후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고, 심리적으로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의치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잔존치아 및 구강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구강위생관리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치과의원에서 의치보철 시술시 환자의 첫 번째 진료부터 진료과정, 진료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통해 시술자와 수혜자간에 신뢰도를 높이고 의

치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계속관리를 설명해 줌으로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의치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인 노인복지보철사업을 확대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자 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중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무료의치를 장착한 수혜자 131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의치사용 만족감 등의 항목이 포함된 면접지를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의 44.3%가 편안하게 의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의치수리는 의치제작 후 1-3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연령층별 의치 수리율 조사에서 65-74세인 경우 60-70%, 75-84세인 경우 45-70%이었다.
3. 의치제작횟수에 따른 편안함 여부는 65-74세에서 2-3회 제작시 90.9%, 75-84세, 85세 이상에서는 1회 제작시 각각 71.0%, 80.0%로 나타났다.
4. 연령층별 의치 착용감 여부에서 착용감이 좋다는 65-74세에서 39.7%이었고, 75-84세에서는 50.0%이었고, 85세 이상에서는 10.3%이었다.
5. 잇몸통증 유무에서 65-74세와 75-84세에서 각각 46.7%이었다.
6. 의치장착 후 안면 만족여부는 8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45%정도 이었다.
7. 의치사용 만족도는 65-74세에서 54.2%, 75-84세에서 51.5%, 85세 이상에서 62.5%이었다.

## 참고문헌

1.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연령별 추계연구(1960-2050).[Online]<http://www.nso.or.kr> 20006.07.20.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사회 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3. 변재관. 복지정책방향-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자료집 고령화와 의료;2002.
4. 박주희, 권호근, 김백일, 최충호, 최연희. 무료양로원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 구강건강상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4):555-556.
5. Budtz-Jorgensen E, Chung JP, Rapin CH. Nutrition and oral health. Best Pract Res Clin Gastroenterol 2001;15(6):885-896.
6. Hirano H, Ishiyama N, Watanabe I, Nasu I. Masticatory ability in relation to oral status and general health on aging. J Nutr Health Aging 1999;3(1):48-52.
7. Boretti G, Bickel M, Geering AH. A review of masticatory ability and efficiency. J Prosthet Dent 1995;74(4):400-403.
8. Gilber GH, Foerster U, Duncan RP. Satisfaction with chewing ability in diverse sample of dentate adults. J Oral Rehabil 1998;25(1):15-27.
9. 김종배. 한국 노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7;15(4):289-296.
10. 최원기, 신승철. 부정치과진료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2): 370-385.
11. 문창진. 노인보건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1999;5:99-113.
12. 권호근. 저소득층 노인틀니치료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단독기초연구개발사업 보고서. 서울: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2000.
13.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재재개정판. 서울:고문사;2004:266-276.
14. 권호근, 김영남, 김백일, 유자혜.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의 구강건강실태조사.

-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28(1):87-96.
15. 2004년도 구강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92.
  16. 최순례, 정성화, 배현숙, 유영아, 최연희, 송근배.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의치 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만족도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4):474-482.
  17. 최연희, 정기호, 김백일, 권호근.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의 틀니 치료사업을 위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02;40(12):850-861.
  18. Bolender CL, Swoope CC, Smith DE. The Cornell Medical Index as a prognostic aid for complete denture patients. J prosthet Dent 1969;22(1):20-29.
  19. 김설희, 임선아, 박수정, 김동기. 구강건강영향지수를 이용한 삶의질과 관련된 구강건강평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28(4):559-569.
  20. 이명선, 김설희, 양정승, 오정숙, 김동기. 65세이상 일부노인의 Oral Health Impact Profile 의 타당도 및 신뢰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2):210-221.
  21. 반응석, 송근배, 정성화, 조광현, 치과의원들의 가철성의치사용에 대한 만족도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1;25(1):79-94
  22. 류동희, 윤수홍, 송근배, 조광현, 정성화. 대학병원치과환자들의가철성의치사용에 대한만족도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24(2):159-170
  23. Berg E, Norway B. Acceptance of full denture. Int Dent J 1993;43:299-306.
  24. 양정승, 김설희, 김동기. 광주광역시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의치만족도와 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6;30(3):298-300.
  25. Hoogstraten J, Broers NJ. The Dent Attitudes Questionnaire: comparing two response formats. Community Dental Oral Epidemiol 1987;15(1):10-13.
  26. Kaplan SH, Greenfield S, Ware JE Jr. Assessing the effects ofphysician-patient interactions on the outcomes of chronic disease. Med Care 1989;27(7):679.
  27. 윤영숙, 권양옥. 전국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노인의치보철사업 현황 및 전망. 한국치위생학회지 2006;6(4):255-261

##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의치 인식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무료의치를 장착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설문은 의치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고 향후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각 물음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진주시보건소

조 사 원		조사번호	
응 답 자	① 본인            ② 대리응답 (            )		

- 1.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2.연령        (            )세
- 3.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 4.동거가족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아들 또는 딸의 가족    ④ 기타 :
- 5.수입        ① 10만원미만    ② 10-19만원    ③ 20-29만원    ④ 30만원 이상    ⑤ 기타 :
- 6.의치종류는 무엇입니까?
- 6.1. 상악 ① 국소의치 ② 총의치        ③ 자연치
- 6.2. 하악 ① 국소의치 ② 총의치        ③ 자연치

- 7.현재의치 사용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년 이상
- 8.의치를 사용한 총 기간은? ① 3년 미만 ② 3-6년 ③ 6-9년 ④ 9년 이상
- 9.의치 제작 횟수는?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 10.잔존치아수는? ① 0개 ② 1-5개 ③ 6-10개 ④ 11-15개 ⑤ 16개 이상
- 11.구강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건강하지 않다

	예	잘 모르겠다	아니오
12. 의치를 장착하고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편안합니까?			
13. 의치는 무언가 불편하여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14. 새 의치를 한 후 무엇보다 편해졌습니까?			
15. 의치는 장갑을 끼듯이 입에 잘 맞습니까?			
16.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습니까?			
17.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의치가 빠집니까?			
18. 의치가 잇몸을 헐게 하거나 아프게 합니까?			
19. 전체적인 얼굴 모습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의치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보건학과	학 번	2006860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강 남 이    한문 : 姜 南 伊    영문 : kang nam ei				
주 소	진주시 신안동 25-46번지 하나빌 301호				
연락처	E-MAIL : namkangtwo@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진주시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인식도 조사 영문 : Awareness of the elderly on denture prosthetic program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o ) 조건부 동의(       ) 반대(       )

2008 년    2월    일

저작자:            강 남 이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